

영어의 핵어 없는 내심구조에 관한 연구¹

김동옥

(광주대학교)

Kim, Dong-ok. 1997. A Study on the Headless Endocentric Structure in English, *Linguistics*, 5-1, 1-29. The \bar{X} -theory is based on the endocentricity principle that all the phrases have their head. But we often find out headless phrases such as *the poor*, *the British* and *the sublime*, which have no phonetic matrix immediately dominated by node N.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some headless phrases, to introduce the previous debates on such endocentric structures, and to provide adequate accounts for their generation. In section 1 we define the headless endocentric structure and state the necessity of this study. In section 2 we introduce the various analyses on the headless phrases and present the examples as many as possible from the headless CP, the headless NP, the headless PP and some other headless phrases. In section 3 we test three hypotheses on the derivation of the headless phrases (namely, deletion hypothesis, gap hypothesis and empty category hypothesis) on the basis of Case-marking and thematic role assigning theories. In section 4 we sum up and conclude this study. (Kwangju University)

1. 서론

핵계층 이론(\bar{X} -theory)은 “모든 구와 절은 핵어(head)를 가진다”라는 내심구조원리(endocentricity principle)에 바탕을 두고 전개된다. 이 내심구조원리는 Chomsky(1981)의 S-문법체제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Chomsky(1986b)에서는 S와 \bar{S} 대신 각각 IP와 CP의 설정으로 핵계층이론의 핵심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내심구조원리는 대단히 구속력이 강한 원리로서 어떤 구-구조(phrase structure)도 핵어를 가지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핵계층이론은 굴절구(IP)와 보문자구(CP)의 채택과 더불어 중간범주(intermediate category)를 설정함으로써 종전의 방만한 범주규칙을 (1)과 같은 범주중립규칙 식형(category neutral rule schema)으로 통합하는 길을

1.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열었다.

$$(1) X^n \rightarrow \dots X^m \dots (n \geq m)$$

규칙식형 (1)은 핵어(head)는 의무성분(obligatory constituent)이고 보충어(complement)는 선택성분(optional constituent)임을 보여준다. 핵어가 의무적이라 함은 핵어가 없으면 구-구조가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핵어절점(head node)이 존재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핵어절점이 직접 관할하는 음성가를 가진 어휘(phonetic matrix)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영어에는 핵어 없는 구(headless phrase)가 자주 발견된다. 예컨대, the young(젊은이), the handicapped(장애인)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NP의 핵 N이 직접관할하는 핵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핵어 없는 내심구조(headless endocentric structure)'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명사구(NP) 이외의 다른 구-구조에도 존재하는지 조사해 보고 그런 구조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런 구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제 2 절은 여러 종류의 '핵어 없는 내심구조'를 조사하고 그것들에 대한 기존 분석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핵어 없는 보문자구(headless CP)', '핵어 없는 명사구(headless NP)', '핵어 없는 전치사구(headless PP)', 그리고 기타 핵어 없는 내심구조를 검토한다. 제 3 절은 '핵어 없는 내심구조'의 생성에 관한 상반된 가설, 즉 삭제가설(deletion hypothesis), 공백가설(gap hypothesis), 그리고 공범주가설(empty category hypothesis)을 제시하고 격-표시와 의미역 배당에 입각하여 그 우열을 가린다. 제 4 절은 이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2. 핵어 없는 내심구조

2.1 핵어 없는 보문자구(headless CP)

Chomsky(1981)에 의하면 절(clause)이 S의 직접관할을 받는데, S는 지배장벽(barrier to government)이다. 따라서 주절의 동사는 종속절의 내부의 어떤 성분도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절의 동사가 부정사절의 주어에게 격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로 S-삭제 규칙(S-deletion rule)을 설정하였다.

한편, Kayne(1981)은 영보문자(null complementizer) \emptyset 를 가정함으로써 Chomsky(1981)가 제안한 값비싼 S-삭제 규칙을 대신하고 있다. 그 예는

다음이다.

(2) I consider [_S [_{COMP} \emptyset] [_S him to be a fool]].

공보문자 \emptyset 는 보문자 for와 마찬가지로 보문의 주어에게 목적격을 부여하는 격-부여자(Case-assigner)로서의 역할을 한다. 공보문자 \emptyset 는 주절의 동사가 보문의 주어에게 목적격을 부여하는 값비싼 예외적 격-표시(exceptional Case-marking)를 없애고 부정사구문인 보문의 주어에게 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격-부여자를 보문자(complementizer)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Radford(1988)는 정상절(ordinary clause) 이외에 예외절(exceptional clause)을 인정함으로써 값비싼 S-삭제 가설과 공보문자 \emptyset 의 설정을 없애고 있다. Radford의 정상절과 예외절은 다음과 같다.

(3) \neg . We believe [_{CP} that the president is not innocent].

└. The president wants [_{CP} PRO to be believed innocent].

(4) \neg . We believe [_{IP} the president not to be innocent].

└. The president wants [_{IP} people to believe him innocent].

예시문 (2)의 보문(complement clause)은 정상절이고 예시문 (3)의 보문은 예외절이다. Radford에 의하면 정상절은 CP가 직접관할하는 절이고, 예외절은 IP가 직접관할하는 절이다.

우리는 이론의 전개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일관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문법에 부담을 준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Chomsky(1981)의 S-삭제 가설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Radford(1988)의 예외절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필자는 오히려 음성가를 가진 어휘 대신, 공보문자 \emptyset 를 삽입하는 Kayne(1981)의 주장을 지지함으로써 보문의 구조에 대한 분석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Kayne의 공보문자 설정은 예외절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외가 아니라 정상절임을 보여준다. 우리의 입장은 (3)의 보문과 같은 예외절도 (2)의 보문과 마찬가지로 CP의 관할 아래에 들으로써 공보문자 \emptyset 를 취하는 보문자구를 '핵어 없는 보문자구(headless CP)'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4)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5) \neg . We believe [_{CP} [_C \emptyset] [_{IP} the president not to be innocent]].

└. The president wants [_{CP} [_C \emptyset] [_{IP} people to believe him innocent]].

(5)는 각 보문(complement clause)이 핵 C가 공범주(empty category) 임을 보여준다. 이는 핵계층이론에 부합하는 분석이며 공범주 \emptyset 를 격-부여자(Case-assigner)로 설정한 Kayne(1981)의 분석과 일치한다.

Radford(1988)는 영어에서 주문(main clause)도 역시 IP가 아니고 CP임을 논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영어의 주문이 비록 아무런 보문자도 취하지 않지만 CP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은 공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도 타당하다. Radford는 주문도 명시적 보문자를 취한다는 증거로서 Clahsen & Smolka(1986)을 인용하여 라트비아어(Latvian), 에스토니아어(Estonian), 페르시아어(Persian) 등 무려 12 개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언어들은 평서문 문두에 영어의 that에 해당하는 보문자를 취하며, 의문문 문두에는 영어의 whether에 해당하는 보문자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Radford는, 또한, 통시적 증거로서 Traugott(1972)를 인용하여 고대영어(Old English)를 제시하고 있다. 고대영어에는 주문도 보문자를 취하는 문장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Radford는 현대영어도 주문이 CP임을 검증하고 있다. 즉, 주어-조동사도치구문에서 I-이동(I-movement)에 의하여 조동사가 이동하는 위치가 바로 CP의 핵 C의 자리라는 점에서 볼 때, 주문(main clause)도 보문과 마찬가지로 보문자구(CP)라는 것이다. 즉, 모든 절(clause)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6) [CP [C [C] [IP ...]]]

(6)은 보문뿐만 아니라 주문에도 적용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6)의 C는 (5)의 그것과 달리 공범주 \emptyset 로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비어있다는 점에서 통사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제 3 절에서 논의될 이유로 (6)의 구조를 우리는 핵어 없는 보문자구(CP)로 보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5)의 보문과 (6)의 주문은 CP의 관할 아래 있기는 하지만 (6)의 주문 CP가 취하는 핵 C와 (5)의 보문 CP가 취하는 핵 C는 그 통사적 속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관찰이다.

2.2 핵어 없는 명사구(headless NP)

가장 전형적인 핵어 없는 내심구조의 예는 [NP the young](젊은이), [NP the handicapped](장애인)와 같은 유형의 핵어 없는 명사구(headless NP)이다. Quirk et al(1985)에서 발견되는 핵어 없는 명사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7) ㄱ. I like [NP some \emptyset] of Jim's friends.
 ㄴ. My car is faster than [NP John's \emptyset].
 ㄷ. I'm going to [NP the dentist's \emptyset].
 ㄹ. Some friends of [NP Jim's \emptyset] will come.
 ㅁ. [NP The tenth \emptyset] on the list is Jim.
 ㅂ. The rose is [NP the most beautiful \emptyset] of all the flowers.
 ㅅ. [NP The poor \emptyset] could be happy.

(7ㄱ)의 양화사(quantifier) some은 (7ㄹ)의 some friends를 고려해 볼 때, 핵어 N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할 만 하다. 몇몇 문법학자들은 (7ㄴ)의 독립속격(independent genitive)과 (7ㄷ)의 국부속격(local genitive), 그리고 (7ㄹ)의 후치속격(post-genitive)을 하나로 묶기도 하지만 Quirk et al(1985)은 굳이 이를 구별하고 있다. 국부속격은 또한 절대속격(absolute genitive)이라고도 한다는 것이 Quirk et al의 주장이다. 그들에 의하면 독립속격은 선택적으로 핵어를 취한다는 점에서 다른 속격과 다르다. 후치속격은 핵어 없는 양화사 구문 (7ㄱ)과 대조하여 볼 때, 핵어가 상보적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즉, some of Jim's friends 혹은 some friends of Jim's 와 같은 표현은 허용되지만 some friends of Jim's friends와 같은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7ㅁ)의 수사(numeral)와 (7ㅂ)의 비교어(comparative)가 부가적으로(attributively)쓰이는 경우와 달리 서술적으로(predicatively) 쓰인 경우에는 그것이 술어(predicate)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을 굳이 NP로 봐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7ㅅ)은 소위 'the + A' 형의 전형적인 핵어 없는 명사구이다.

가장 전형적인 (7ㅅ)의 유형에 속하는 핵어 없는 명사구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²

- (8) ㄱ. the poor, the young, the brave, the weak, the maladjusted, the elderly, the underprivileged, the handicapped
 ㄴ. the British, the Dutch, the French, the Cornish, the English, the Irish, the Spanish, the Turkish, the Welsh
 ㄷ. the latest, the mystical, the unknown, the best, the sublime, the ridiculous, the exotic, the beautiful

2. Quirk et al(1985: 60 & 421)는 다음을 형용사가 head인 NP의 종류로 제시하고 있다.

(8ㄱ)은 항상 복수(plural number)라는 통사적 속성과 항상 통칭적 의미(generic reference)의 사람을 가리킨다는 의미적 속성을 지닌 핵어 없는 명사구의 한 유형이다. (8ㄴ)은 의미적으로 국적(nationality)을 나타내며 통사적으로는 복수 명사구이다. 특히 이 유형의 명사구는 말음이 /s/ 혹은 /z/인 국적형용사만을 취한다는 특이한 어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8ㄷ)은 추상적 의미(abstract reference)를 가진 명사구이다. 특히 the latest, the best와 같이 최상급 형용사를 취하는 명사구는 핵어로서 thing 혹은 news 등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8ㄱ), (8ㄴ)과 다르다.

김동욱(1993)는 주제문(topic sentence)의 특성과 외치문(extraposed sentence)의 특성을 살펴볼 때, 소위 문장주어(sentential subject)를 핵어 없는 명사구로 분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한다. 소위 문장주어를 취하는 (9)에 대한 분석은 학자에 따라 (10)과 같이 다양하다.

(9) [That the world is round] is obvious.

(10) ㄱ. [_{NP} [_{NP} e] [_{CP} That the world is round]] is obvious.

ㄴ. [_{CP} That the world is round] is obvious.

ㄷ. [_{TOP} That the world is round] [_{IP} [_{NP} e] is obvious].

(10ㄱ)은 전통적 분석방법의 하나로서 Emonds(1970)와 Emonds(1976)가 제시한 것으로서 명사구의 핵어가 공백으로 남아 있다.³ 이 공백은 CP가 외치변형하면 허사 it로 채워진다. (10ㄴ)은 Chomsky(1981)의 분석인데 CP가 명사구의 직접관할 아래 있지 않은채 주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분석이다.⁴ (10ㄷ)은 Koster(1978), Stowell(1981)의 분석이다.⁵ 이 분석에 의하면 소위 '문장주어'라는 것이 주어 위치(subject position)에 있지 않고 오히려 주제 위치(topic position)에 있다는 것이다.

이 분석들은 제 각각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고 있다. (10ㄱ)은 문장의 주어(subject)가 NP의 직접관할을 받는다는 구-구조 규칙을 준수하지만 핵계층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핵어 없는 명사구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10ㄴ)은 영가설(null hypothesis)에 입각하여 분석상의 단순화에 기여하지만 기존의 구-구조규칙이 수정되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3. 문장주어와 문장목적어를 NP→S로 분석함으로써 핵어 없는 명사구로 본 최초의 학자는 Rosenbaum(1967)이다.

4. Chomsky(1981:93)은 주어와 목적어가 NP와 절(clause)이 교재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5. Koster(1978)는 주제의 기저생성규칙을 제시하고 있고 Stowell(1981)은 (10ㄷ)의 공주어가 공연산자 O에 의하여 결속되어 주어와 연결된다고 분석한다.

한편, (10ㄷ)은 (10ㄱ)과 (10ㄴ)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지만 주어 없는 절 (clause)을 인정하게 되어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에 위배된다.

김동욱(1993)은 특히 (10ㄷ)의 분석이 주제어(topic)가 특성상 명사구(NP)라는 점과⁶ 명사구를 후치수식하는 보문자구(CP) 혹은 전치사구(PP)만이 외치변형(extraposition)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⁷ 고려해 볼 때, 오히려 (10ㄱ)을 선호하고 있다. (10ㄱ)은 결국 핵어 없는 명사구의 예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 3 절에서 제시될 이유로 우리는 (9)의 문장주어를 핵어 없는 명사구로 보지 않을 것이다.

2.3 핵어 없는 전치사(headless PP)

Bresnan & Grimshaw(1978)는 독립관계사절(free relatives)의 핵어 WH-어구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부사어로 기능하는 독립관계사절에 대한 그들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 (11) ㄱ. I'll put my books [ADVP [ADVP wherever] [s you put yours]].
 ㄴ. I'll go [ADVP [ADVP whenever] [s you do]].
 ㄷ. I'll word my letter [ADVP [ADVP however] [s you word yours]].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WH-어구에 대한 기저생성 가설(base hypothesis)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분석하는 독립관계사절의 구조가 (11)이라는 점이다.

6. 주제어(topic)가 특징적으로 명사구(NP)라는 주장은 Emonds(1976), Soames & Perlmutter(1979) 그리고 Pira(1979)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명사구 이외의 성분이 문두에 있는 것은 단순한 도치구문일뿐이고 그것들을 주제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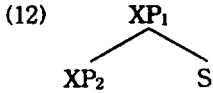
- (1) *In London* I was born and *in London* I shall die.
 (2) *Shot by natuionalist guerrillas* were two entirely innocent tourists.
 (3) *Hardly* had I dreamt that he would succeed in the entrance exam.

7. 다음의 세 예는 모두 명사구를 후치수식하는 구 혹은 절이 외치변형되어 도출된 구문이다.

- (1) The fact [e] is obvious [*that the world is round*].
 (2) A man [e] was here [*who John knows*].
 (3) A review [e] has just appeared [*of my latest book*].
 (4) More information [e] has come to light [*than Marcia told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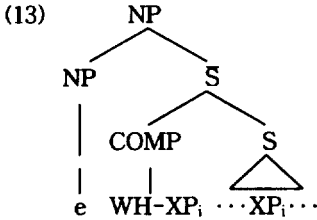
위 예들은 외치변형의 대상이 명사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중량 명사구(heavy NP shift)는 외치변형과 구별된다.

8 김 동 욱



(12)는 독립관계사절 XP₁이 WH-어구 XP₂와 통사적 범주가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12)는 핵계층이론으로 설명하기에 난점이 있다. 핵계층 이론에 의하면 (12)는 순환적 부착어규칙(adjunct rule) 혹은 한정어규칙(attribute rule)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즉, (12)의 S가 선택적 성분인 부착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12)에서 S는부착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성분도 아니다. 오히려 (12)는 동격절을 취하는 복합명사구(complex noun phrase) 혹은 선행사를 가진 일반관계사절의 구조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Groos & Riemsdijk(1979)는 (11)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3)은 (11)의 독립관계사절이 핵어 없는 명사구(headless NP)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동사의 하위범주화 자질과 격-부여 문제를 고려할 때, 너무 강해 보인다.

- (14) ㄱ. I'll put my books [PP on the desk that you put yours].
- ㄴ. I'll put my book [XP e [S wherever you put y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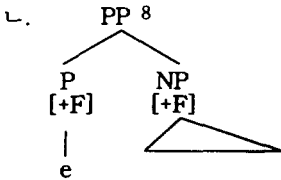
예컨대, 동사 put는 의무적 보충어로서 명사구(NP)와 위치 부사어(locative adverbial)를 취한다. 따라서, (14ㄱ)의 PP와 (14ㄴ)의 XP는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배당받아야 하는 논항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시성조건(visibility condition)은 논항이 의미역을 부여받기 위하여 격-부여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14ㄴ)의 XP가 명사구라면 그것에 격-표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11)의 독립관계사절을 단순히 명사구로 보는 Groos & Riemsdijk의 주장도 받아 드리기 어렵다.

독립관계사절에 대한 설득력있는 분석은 Larson(1985)과 Larson(1987)에

서 발견된다. 그에 의하면 (14ㄴ)의 소위 'bare-NP adverb'인 XP는 구조적으로는 NP이지만 기능과 분포는 PP라는 것이다. 물론 규칙-중심의 초기 변형문법과 달리 원리-중심의 GB-이론은 분포와 범주간의 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러나 분포상의 공통성을 범주로 포착하지 못하면 구조분석의 일관성을 상실하여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분포상 공통적인 성분은 하나의 범주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Chomsky (1970)과 Jackendoff(1977)의 주장을 존중하고 싶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Larson(1987)의 분석은 호의적이다.

Larson은 (14ㄴ)의 XP를 핵어 없는 PP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격-부여 방법과 의미역 배당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5) ㄱ. I'm sure John went [PP {where(ever)}
 {when(ever)}] Mary did].



(15ㄴ)의 [+F]는 NP에게 격을 부여하는 추상적 자질이다. [+F]는 원래 핵 P가 지닌 자질이므로 결국 핵 P가 추상적 자질 [+F]의 형태로 NP 속에 내포되어(incorporated)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Larson의 주장을 받아드려 독립관계사절을 핵어 없는 전치사구(headless PP)로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격-표시 방법 그리고 의미역-부여 방법을 찾아 보기로 한다.

우리는, 또한, 다음의 예도 핵어 없는 전치사구로 분류하고 싶다.

(16) ㄱ. John arrived here [last night].

ㄴ. You have lived [someplace warm and sunny].

ㄷ. We were headed [that direction].

ㄹ. You pronounced my name [every way one could imagine].

(16ㄱ)의 last night는 시간부사어(temporal)로 기능하는 명사구이고 (16ㄴ)

8. Larson(1985)은 이를 PP로 보는 대신 단순히 [+F]자질을 가진 NP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 [+F]는 핵어 P의 속성을 반영하는 자질이다. 그러나 Larson(1987)은 핵어 없는 전치사구로 분석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 someplace는 장소부사어(locative)로 기능하는 명사구이고 (16ㄷ)의 that direction은 방향부사어(directive)로서의 명사구이며 (16ㄹ)의 every way는 태도부사어(manner)로서의 명사구이다. 우리의 입장은 제 3 절에서 언급될 이유로 이 명사구들이 궁극적으로는 PP의 직접관할 아래 있고 그 PP의 핵 P가 공범주(empty category)로 채워져 있다고 보자는 것이다.

핵어 없는 전치사구가 존재할 가능성은 소위 '이중목적어 구문(double object construction)의 분석에서 발견된다. 이중목적어 구문은 격-부여와 관련하여 항상 분석상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구문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17ㄴ)에 대한 Williams(1975)와 Chomsky(1981)의 분석은 각각 (18ㄱ)과 (18ㄴ)이다.

- (17) ㄱ. John gave a book to Bill.
 ㄴ. John gave Bill a book.
 (18) ㄱ. John [_{VP} [_V gave Bill] a book].
 ㄴ. John [_{VP} gave Bill a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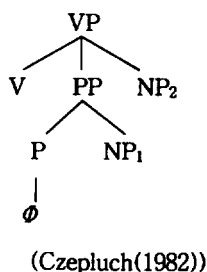
Williams는 (18ㄱ)에서 a book가 중간범주 \bar{V} 에 의하여 격-부여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격-표시의 인접조건(adjacency condition)을 준수하지만 격-부여자가 어휘범주여야한다는 전제를 포기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Chomsky의 분석 (18ㄴ)은 본유격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격-표시 문제를 빚겨가고 있다.

이에 대한 Czepluch(1982)와 Kayne(1983)의 분석은 대단히 흥미롭다. (17ㄴ)에 대한 그들의 분석은 (18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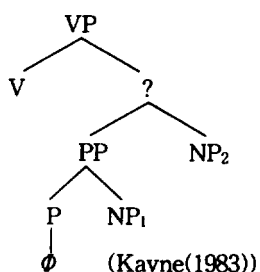
- (18) ㄷ. John [_{VP} gave [_{PP} \emptyset Bill] a book].

그들은 소위 '이중목적어 구문 (17ㄴ)을 (18ㄷ)으로 분석함으로써 구조적 부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Czepluch와 Kayne의 분석은 각각 (19)이다. Czepluch의 분석 (19ㄱ)과 Kayne의 분석 (19ㄴ)은 각각 여격동사구 VP가 삼분지(ternary branching)와 양분지(binary branching)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19) ㄱ.



ㄴ.



물론 Czepluch와 Kayne의 분석이 아직도 인접조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접목적어에게 격-표시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긴 하지만 Williams (1975)의 중간범주 ∇ 를 격-부여자로 삼는 문제점과 Chomsky(1981)의 값비싼 본유격-부여를 없애주는 효과는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19)의 분석이 공통으로 간접목적어를 핵어 없는 전치사구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는 핵어 없는 전치사구의 공범주 \emptyset 에게 간접목적어에게 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17ㄴ)과 (17ㄱ)의 의미적 공통성을 구조적 유사성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2.4 기타 핵어 없는 구

우리는 우선 소절(*small clause*)을 핵어 없는 굴절구(*headless IP*)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소개하려한다. 소절이 굴절소 I를 취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Chomsky(1981), Rothstein(1983)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소절을 $S(=IP)$ 로 보지 않으려한다. 이 주장은 핵계층이론에 입각하여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핵 I가 없는 IP의 설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다른 구-구조에서도 발견된다면 굳이 소절을 IP로 간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소절을 핵어 없는 굴절구(IP)로 보는 견해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의 소절에 대한 논의들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Stowell(1981)은 소절의 통사 범주를 소절의 술어의 최대투사 범주로 간주하였다.

(20) ㄱ. They consider [_{AP} him [_X honest]]

ㄴ. They want [_{PP} John [_P out of the team]].

Stowell의 분석 (20)에 대한 비판은 Rothstein(1983)에서 찾을 수 있다.

Rothstein의 의하면 (20)은 절(clause)의 주-술 관계는 술어연결규칙(predicate-linking rule)로 포착되는데, 이 술어연결규칙은 최대투사범주 사이에서만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절의 술어도 최대투사범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Rothstein의 주장이다.

한편, Chomsky(1986b)는 소절의 술어의 통사적 범주도 소절의 통사적 범주와 마찬가지로 최대투사범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절에 대한 Chomsky(1986b)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 (21) ㄱ. They consider [_{AP} John [_{AP} honest]].
 ㄴ. They expect [_{PP} John [_{PP} off the ship]].

그러나 분석 (21)은 각 소절이 핵계층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점을 안고 있다. 즉, 소절을 XP로 분석한다면 그 XP의 술부(predicate)는 X여야 핵계층이론에 걸맞는다.⁹ 즉, (21)의 소절은 부착어규칙이나 한정어규칙 등과 같은 순환규칙(recursive rule)으로 생성되는데 술부는 결코 부착어나 한정어가 아니다.

Stowell(1981)과 Chomsky(1986b)의 주장이 공통으로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소절에 대한 의미역배당(theta-role assignment)에 있다. 변형생성문법이론에서 통상 의미역을 배당받을 수 있는 논항은 NP와 CP에 한한다. 그런데 (20) 혹은 (21)의 소절은 모문(matrix sentence)의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배당받고 있다. 결국 소절은 술부의 범주에 따라 XP가 NP 뿐만 아니라 AP, PP 그리고 VP일 수도 있으므로 AP, PP, VP도 의미역을 배당받는 논항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Williams(1983)는 소절의 부재론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소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21)은 (22)처럼 분석된다.

- (22) ㄱ. They [_{VP} [_v consider] [_{NP} John] [_{AP} honest]].
 ㄴ. They [_{VP} [_v expect] [_{NP} John] [_{PP} off the ship]].

(22)는 전통문법(traditional grammar)에서 흔히 발견되는 분석이지만 이 분석은 소절의 주-술관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 최대의

9. Radford(1988)가 제시하고 있는 핵계층규칙은 다음과 같다.

- (i) XP → ...X... (지정어규칙)
 (ii) X → ...X... (부착어규칙 또는 한정어규칙)
 (iii) X → ...X... (보충어규칙)

이중에서 (ii)만이 순환규칙이며 수의적으로 적용된다.

절점이라고 할 것이다. 즉, (22)는 소절의 주부와 술부가 각각 동사구의 개별 성분임을 보여주지만 그 두 성분이 하나의 성분으로 묶을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소절의 주어와 술어는 하나의 절점에서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주-술관계를 포착할 술어연결규칙을 적용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핵계층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별로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하나의 주장이 Horstein & Lightfoot(1981)에서 제시되었다. 그들은 소절을 굴절구(IP)로 분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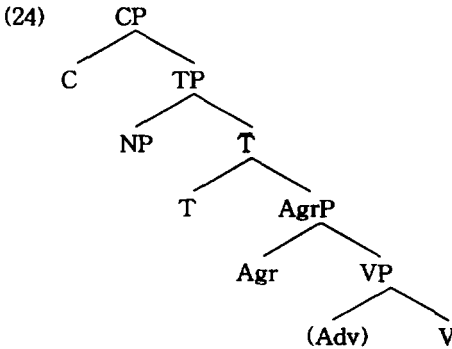
- (23) ㄱ. They believe [_{IP} him [_I e [_{NP} John's friend]]].
- ㄴ. They consider [_{IP} the President [_I e [_{AP} innocent]]].
- ㄷ. They want [_{IP} John [_I e [_{PP} off the ship]]].
- ㄹ. They saw [_{IP} John [_I e [_{VP} leave]]].

그들의 의도는 핵 I가 공범주(empty category)인 IP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핵이 공범주이므로 소절을 굴절구(IP)로 분석하는 것이 핵계층이론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은 문제가 없지 않지만 소절의 주-술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강점때문에 핵어 없는 내심구조를 연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독립관계사절(*free relative clauses*)에 대한 Bresnan & Grimshaw(1978)의 분석 (11)이 옳다면 핵어 없는 형용사구(AP)와 핵어 없는 부사구(ADVP)도 존재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추정은 너무 강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독립관계사절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고 어느 분석이 타당한지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SICOL-92 기간에 만난 초청연사 Higginbotham로부터 *the only thing, the very book*에서 *only*와 *very*가 핵어 없는 형용사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이 견해를 터무니 없는 것으로 일축하였다. 그에 의하면 *only*와 *very*는 그 자체가 형용사구의 핵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핵어 없는 형용사구나 핵어 없는 부사구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 핵어 없는 보문사구, 핵어 없는 굴절구, 핵어 없는 명사구 그리고 핵어 없는 전치사구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용사구나 부사구 그리고 기타 의미있는 다른 구에서도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존재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우리가 언어를 보편적 측면에서 검토할 때 더욱 그러하다.

언어적으로 의미 있는 구(*phrase*)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된 구절 이외에도 학자에 따라 양화사구(QP), 한정사구(DP)등이 설정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Pollock(1989)는 문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종전에 없던 TP와 AgrP와 같은 기능적 구(functional phrase)를 추가하고 있다. 그의 문장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의 의하면 종래의 IP는 핵-이동(head-movement)을 막는 장벽이므로 TP로 바꾸고 핵-이동의 장벽이 아닌 AgrP를 새로이 설정하여 Chomsky(1986b)의 IP를 대신하자는 것이다. 이런 기능구는 비록 Iatridon(199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¹⁰ 다소의 명칭상의 차이는 있지만 Chomsky(1991)와 Chomsky(1993)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24)의 TP의 핵 T와 AgrP의 핵 Agr은 CP의 핵 C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공범주로 채워지지 않고 공백으로 남아 있고 그 공백은 차후 핵-이동으로 채워질 공백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핵어 없는 내심구조와 다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핵어 없는 구조는 공범주추가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Kayne(1987)은 부정어 not을 핵으로 하는 부정구(NegP)를 설정하였는데¹¹, Pollock(1989)는 부정구(NegP)가 언어보편적인 구절이라고 보기는 아

10. Iatridon(1990)는 Pollock(1989)의 AgrP를 인정하게 되면 AgrP가 존재하지 않은 언어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개별언어에 필요한 수많은 기능구의 설정이 불가피해지며 그것은 결국 언어보편성을 추구하는 보편문법이론에 역행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11. Baker(1991)는 다음의 예에서 부정어 not의 유무가 동사-이동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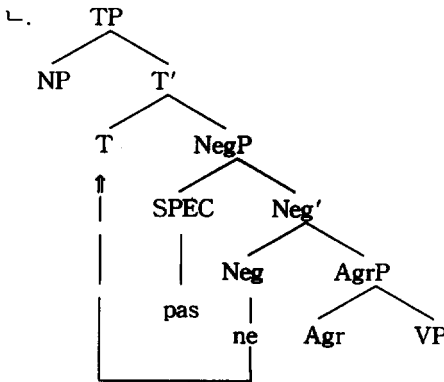
(1a) Laura never was very polite.

(1b) Laura never wrote the letter.

직 어렵지만 만약 부정구를 설정한다면 not는 NegP의 핵(head)이 아니라 지정어(specifier)로 분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정어 not가 NegP의 핵이 아니라 지정어라는 Pollock의 주장은 적어도 두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경동사(light verb)인 be, have, do 등이 동사-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즉, Neg 자리가 비어있으면 경동사가 그 자리를 거쳐서 TP의 핵 T의 자리로 단계적 핵-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부정어 not가 NegP의 핵이 아니라 지정어라면 경동사의 이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굳이 Rizzi(1989)의 상대적 최소성원리(relativized minimality)를 채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와 같은 로맨스어에서 첨사(clitic)의 이동이 영어의 동사-이동(V-movement)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5) [_{TP}He [_{T'}[_T~es]_{NegP} not [_{Neg'}[_{Neg}]] [_{AgRP}[_{Ag} do]_{VP} understand it]]]]].

(26) ㄱ. Pierre dit ne pas manger. ('Pierre says not to eat')



영어의 예 (25)는 TP의 핵 T와 NegP의 핵 Neg가 비어있는 반면, 불어의 예 (26)은 TP의 핵 T만 비어있고 Neg는 첨사(clitic)로 채워져있다. (25)의 공백들은 do의 이동 통로가 되고 (26)의 T는 첨사 ne의 핵-이동을 가능케

(2a) Laura was not very polite.

(2b) *Laura not wrote the letter.

(2c) Laura did not write the letter.

(1)과 (2)는 never와 달리 not은 동사 be와 do의 이동에 결정적인 성분이다. 다만 부정어 not은 V'의 관할을 받든지 I'의 관할을 받든지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한다.

문제는 (25)의 구조에서 NegP를 핵어 없는 내심구조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핵의 위치에 어휘 삽입이 안되고 비어있는 경우를 우리는 앞서 주문(main clause)에서 관찰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런 보문자구를 핵어 없는 내심구조로 간주하지 않듯이 (25)의 Neg는 핵어 없는 내심구조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내하면 그 공백은 앞서 살핀 바 있는 CP의 핵 C, TP의 핵 T, 그리고 AgrP의 핵 Agr와 마찬가지로 공범주가설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소절을 IP로 분석한다면 소절의 술부를 핵어 없는 동사구(Headless VP)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23ㄱ), (23ㄴ)과 (23ㄷ)은 각각 (27ㄱ), (27ㄴ)과 (27ㄷ)과같이 분석가능할런지 모른다.

- (27) ㄱ. They believe [_{IP} him [_T \emptyset [_{VP} \emptyset [_{NP} John's friend]]]].
 ㄴ. They consider [_{IP} the President [_T \emptyset [_{VP} \emptyset [_{AP} innocent]]]].
 ㄷ. They want [_{IP} John [_T \emptyset [_{VP} \emptyset [_{PP} off the ship]]]].

사실 (23)의 소절의 술부는 VP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구조였다. (27)의 가능성은 소절의 주어와 술부 사이에 to be를 삽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하다. 그러나 (23)을 (27)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즉, 우리가 (27)의 분석을 허용하면 (28)의 분석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 때문이다.

- (28) ㄱ. They consider [_{CP} \emptyset [_{IP} him [_T \emptyset [_{VP} \emptyset [_{NP} John's friend]]]]]].
 ㄴ. They consider [_{CP} \emptyset [_{IP} John [_T \emptyset [_{VP} \emptyset [_{AP} honest]]]]]].
 ㄷ. They expect [_{CP} \emptyset [_{IP} John [_T \emptyset [_{VP} \emptyset [_{PP} off the ship]]]]]].

소절의 분석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소절을 핵어 없는 IP로 분석할 경우에 핵어 없는 VP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끝으로 핵어 없는 동사구 설정의 가능성을 제기한 Larson(1988)의 이중목적어구문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기로 한다.¹² Larson에 의하면 (29)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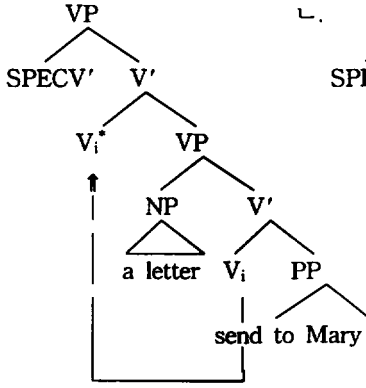
12. Larson의 이중목적어구문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McConnell-Ginet(1982)의 그것과 일치한다. McConnell-Ginet는 모든 부사어를 동사의 부속어로 보지 않고 보충어로 간주한다. 예컨대, I wrote a letter to Mary in the evening.의 기저구조는 다음과 같다.

출과정은 각각 (3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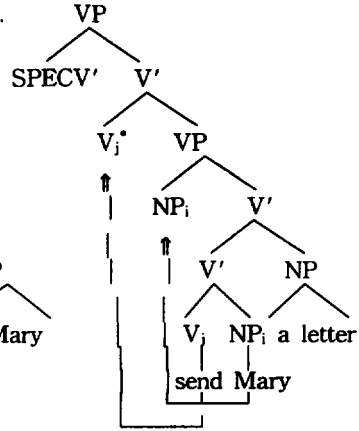
(29) ㄱ. John sent a letter to Mary.

ㄴ. John sent Mary a letter.

(30)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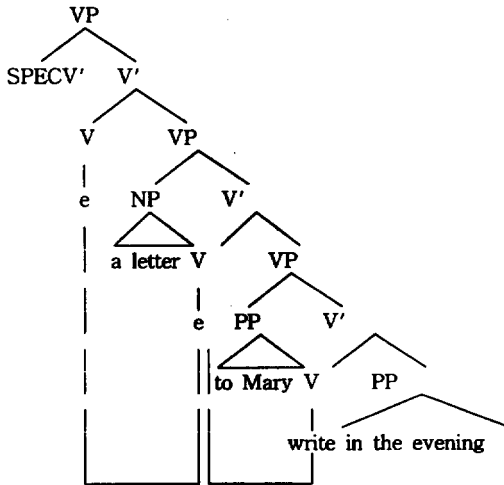


ㄴ.



(30ㄱ)과 (30ㄴ)은 두 직접목적어 a letter가 V'의 부착어로서 V'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우리가 (30)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V_i^* 와 V_j^* 가 각각 비어있다는 점이다. 이 빈 자리는 인상되는 동사에 의하여 채워진다.

우리는 앞서 여러 구조를 살펴 본 바와 같이 변형에 의하여 채워지는 공



백을 가진 구조를 핵어 없는 내심구조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공백은 제 3 절에서 논의하게 될 공범주가설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은 핵어 없는 동사구 존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분석이다.

3. 핵어 없는 내심구조의 생성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가에 대하여 추측가능한 가설은 삭제가설(deletion hypothesis)과 공백가설(gap hypothesis) 그리고 공범주가설(empty category hypothesis)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 가설을 분포상의 특성 및 격-부여와 의미역-배당에 입각하여 검증해보고자 한다.

3.1 삭제가설

삭제가설(deletion hypothesis)이란 기저부에서 생성된 핵어가 어떤 이유로 변형부에서 삭제되어 결국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도출된다고 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핵어 없는 보문자구(headless CP)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31) ㄱ. I consider [_{CP} for [_{IP} him to be a fool]].
 ㄴ. I consider him to be a fool.

(31 ㄱ)을 기저형으로 하여 (31 ㄴ)이 도출된다고 보자는 것이 삭제가설이다. 이 방법은 초기 변형문법에서 널리 채택되던 보문자 For-삭제규칙에 의한 것이다. 초기 변형문법이론에 의하면 For-삭제규칙은 동일명사구 삭제(equi-NP deletion)와 주어-목적어 인상(subject-to-object raising)이 의무적으로 수반하는 규칙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삭제가설은, 우선, 동일명사구삭제와 주어-목적어 인상규칙이 무용해짐에 따라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

삭제가설은, 또한, 핵어 없는 명사구에서 그 정당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 (32) ㄱ. [_{NP} The poor people] could be happy.
 ㄴ. [_{NP} The poor] could be happy.

(32 ㄴ)이 (32 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 삭제가설이지만, 핵어를 가진 (32 ㄱ)의 명사구와 핵어를 가지지 않은 (32 ㄴ)의 명사구는 그 지시의미(reference)가 다르다. 즉, (32 ㄱ)의 the poor people이 특칭적 지시의미

(specific reference)를 가진 반면, (32ㄴ)의 the poor는 통칭적 지시의미 (generic reference)를 가진다. 따라서 (32ㄴ)이 (32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만약 삭제에 의하여 핵어 없는 명사구가 도출되는 것이라면 그 삭제는 '모든 변형은 의미보전적(meaning-preserving)'이라는 Katz-Postal 가설과 전통적 개념의 회복성조건(recoverability condition)을 위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삭제는 기본적으로 수의규칙이므로 핵어가 삭제되지 않아도 문법성에는 지장이 없어야 옳다. 그러나 우리는 삭제규칙이 수의적이지 아니한 예를 많이 발견한다. 예컨대,

- (33) ㄱ. She wants to move (to) someplace new.
 ㄴ. I'm leaving (on) the day after tomorrow.
 ㄷ. He pronounced my name (in) that way.
- (34) ㄱ. She has lived *(in) Korea for ten years.
 ㄴ. John arrived *(on) that occasion.
 ㄷ. He pronounced *(in) this fashion.
- (35) ㄱ. She wants to go (*to) home right now.
 ㄴ. John arrived (*on) yesterday.
 ㄷ. He pronounced (*in) every way imaginable.

(33)은 PP의 핵어가 수의적임을 보여주는 반면, (34)는 전치사가 결코 삭제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35)는 전치사가 결코 허용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33), (34) 그리고 (35)는 결국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삭제에 의하여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3.2 공백가설

공백가설(gap hypothesis)은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어휘삽입(lexical insertion)의 수의성때문에 핵(head)의 자리가 비어있게 된 결과로 생성된다는 것이다. D-구조는 기저규칙에 의하여 생성된 구조에 어휘를 삽입함으로써 생성되는데¹³, 이 어휘삽입은 수의 규칙이므로 핵어 자리에 어휘가 삽입되지 않고 종단절점(terminal node)이 공백으로 남아있게 되면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생성된다는 것이 공백가설이다.

13. Chomsky(1981:145)에 의하면 어휘삽입이 S-구조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는 않다. 예컨대, Otero(1976), den Besten(1976), Fiengo(1979) 등이 그렇다.

Chomsky(1981:193)에 의하면 어휘삽입에는 음성가를 가진 어휘뿐만 아니라 자절다발의 삽입 또는 공범주의 삽입도 포함된다. 심지어는 어떤 어휘항목(lexical item)도 삽입안될 수도 있다. 예컨대, Chomsky(1981:93)에 의하면 동사 prefer, believe, want는 모두 S(=CP)를 취하지만 보문자 for의 유무로 구별된다고 밝히고 있다.

- (36) ㄱ. I prefer [CP [C for] [IP you to leave]].
 ㄴ. I believe [CP [C] [IP you to leave]].
 ㄷ. I want [CP [C t] [IP you to leave]].

(36)은 prefer가 보문자 for를 취하는 반면, believe는 for를 취하지 않고 want는 for를 취하지만 삭제됨을 보여준다.¹⁴ (36ㄷ)의 공백은 보문자 for-삭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36ㄴ)의 공백과 다르다. 공백가설은 바로 (36ㄴ)의 핵어 없는 보문자구(headless CP)의 생성을 위한 가설인 것이다.

공백가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없다고 보자는 것이지만 격-부여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36ㄴ)이 옳다면 you가 격(Case)을 부여받지 못하여 격-여과(Case filter)에 걸리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핵어 없는 전치사구에서도 제기될 것이다.

- (37) ㄱ. She wants to go [PP [P] [NP home]].
 ㄴ. John arrived [PP [P] [NP yesterday]].

만약 공백가설에 따라 (37)의 핵어 없는 전치사구가 생성된다고 하면, 명사구 home과 yesterday가 각각 격-여과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공백가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동규칙(movement)에 의하여 그 공백이 음성가를 가진 어휘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핵어 없는 내심구조의 핵어는 다른 음성가를 가진 어휘로 채워지지 못한다. 예컨대,

- (38) ㄱ. [CP [C] John will be back soon].

14. 어휘삽입의 수의성은 물론 투사원리(projection principle)의 의하여 규제를 받게되므로 어휘삽입이 안되어 필요한 사전적 정보가 통사부에 투사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논항(argument)의 자리에 음성가를 가진 어휘가 삽입되지 않으면 공범주 PRO가 대신 삽입된다. 이 때 PRO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I consider [_{CP} [_C] John to be back soon].

(38ㄱ)의 공백 C의 자리는 굴절소-이동(I-movement)에 의하여 will로 채워질 수 있다. 그러나 (38↳)의 공백 C의 자리는 결코 다른 어떤 음성가를 가진 어휘로 채워질 수 없다. 이것은 결국 (38↳)의 C가, (38ㄱ)의 그것과 달리, 사실은 공백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하여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38↳)을 순수한 핵어 없는 보문자구조로 간주하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the poor(빈자), the sublime(고결)과 같은 명사구의 핵 N의 자리에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고는 결코 어떠한 어휘도 삽입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리가 공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39) ㄱ. sympathy for [_{NP} the poor [_N]]

↳. [_{NP} the sublime [_N]] in art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9)의 공백에 음성가를 가진 어휘를 삽입하면 의미가 바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동규칙도 성분을 그 공백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¹⁵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지닌 이런 통사적 특성은 결국 공백가설이 마땅하지 않음을 반영한다.

3.3 공범주가설

공범주가설(empty category hypothesis)에 의하면 핵어 없는 내심구조는 구-구조의 핵(head)이 음성가를 가진 어휘(phonetic matrix) 대신에 공범주(empty category)로 채워짐으로써 생성된다고 보는 가설이다. 따라서 핵어 없는 내심구조는 외관상 핵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핵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40) I consider [_{CP} [_C Ø] [_{IP} him to be a fool]].

(40)의 CP는 핵어 없는 보문자구인데, 그 CP의 핵 C의 위치에는 공범주 Ø가 채워져 있다. Kayne(1981)에 의하면 이 공범주 Ø는 보문의 주어 him에게 격(Case)를 부여하는 격-표시자(Case-marker)역할을 한다.

15. Quirk et al(1985: 60, 421)이 형용사를 (39)의 NP의 핵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9)과 같이 핵어 없는 명사구로 분석하는 것은 poor와 sublime을 명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2 김 동 욱

공범주가설이 삭제가설보다 나은 이유는 다음의 예에서 명백하다.

- (41) ㄱ. [NP the poor [N men]]
- ㄴ. [NP the poor [N \emptyset]]

(41ㄱ)과 (41ㄴ)은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즉, (41ㄱ)은 특칭적 독법(specific reading)을 가지는 반면, (41ㄴ)은 통칭적 독법(generic reading)을 가진다. 그런데 의미보존가설에 의하면 어떠한 변형도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못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삭제에 의하여 생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핵어 없는 명사구는 핵어 자리가 공백이 아니고 공범주 \emptyset 로 채워져 있고 그 내부구조에 NP의 지정어(specifier)인 관사와 한정어(attribute)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격-부여와 의미역-부여에 문제가 없다. 예컨대,

- (42) [NP the [N handicapped [N \emptyset]]]

명사구 (42)의 the는 지정어이고 handicapped는 한정어이다. 통상 한정어는 수의적인 성분이지만 핵어 없는 명사구에서는 의무적 성분이다. 아마도 (42)에서 지정어와 한정어의 의무성은 핵어가 없는 내심구조에 대한 보상적 속성일 것이다. 명사구 (42)는 PRO와 달리 지배위치에 오며 지배관계에 있는 [-N]이 그것의 보충어인 (42)에게 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굳이 그 격이 핵어 \emptyset 에게 삼투(percolation)된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 핵어 없는 명사구 (42)는 핵어를 가진 명사구 또는 공범주 PRO와 마찬가지로 의미역을 부여받는 논항이다. 즉, 핵어가 비록 없지만 그 명사구는 지배받는 A-위치(A-position)에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범주가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백가설보다 낫다. 즉, 외관상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핵어 자리에 어떠한 성분도 이동해 올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예컨대,

- (43) [CP [C] [IP you [I can] do it yourself]].
- (44) We believe [CP [C \emptyset] [IP the president not to be innocent]].

(43)의 C는 I-이동규칙(I-movement)에 의하여 채워질 수 있는 자리이지만 (44)의 C에는 다른 성분이 이동해 올 수 없다. 외관상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다른 성분이 이동해 올 수 없다는 것은 그 자리가 보이지 않은 성분으로 선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4)의 C가 공범주로 채워

져 있다는 것은 마치 (45)의 C가 if로 채워져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45) I wonder [_{CP} [C if] [_{IP} you can do it yourself]].

(45)는 I-이동규칙으로 C 자리에 can을 이동시키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핵어 없는 내심구조에 (44)를 포함시키는 반면, (43)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공범주가설에 입각하여 문장주어를 핵어 없는 명사구로 볼 수 있으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문주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위치변형과 더불어 허사 it가 삽입된다고 보는 견해는 공범주가설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범가설이 들어 맞다. 그러나 문장주어의 위치변형을 인정하지 않고 소위 '문장주어'가 주제문(topic sentence)도 아니라고 하면 문장주어를 핵어 없는 명사구로 분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초기 변형문법이론에 부합하며 CP를 주어로 간주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범주규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공범주가설은 부착어(adjunct)의 의미역 배당을 설명하는 데 효율적이다. 부착어는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배당받아야 한다. 그런데, 가시성조건(visibility condition)에 의하면 명사구가 의미역을 배당받으려면 가시적이어야 하고, 명사구가 가시적일려면 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예컨대,

(46) ㄱ. John gave a book [_{PP} to [_{NP} me]].

ㄴ. I will put the book [_{PP} on [_{NP} the shelf]].

(47) ㄱ. You must go [_{PP} to [_{NP} school]] right now.

ㄴ. John will arrive [_{PP} in [_{NP} the evening]].

(46)의 각 PP는 보충어(complement)로 기능하고 (47)의 각 PP는 부착어(adjunct)로 기능한다. 위의 명사구는 그것이 보충어의 일부이든 부착어의 일부이든 상관없이 제각각 고유의 의미역을 가진다. (46ㄱ)의 명사구 me는 수혜자(recipient)역을, (46ㄴ)의 명사구 the shelf는 위치(locative) 역을 배당받으며, (47ㄱ)의 명사구 school은 방향(directive)역을, (47ㄴ)의 명사구 the evening은 시간(temporal)역을 배당받는다. 이들 명사구는 각각 핵어인 전치사로부터 격을 부여받고 있어서 가시성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렇다면, 핵어 없는 부착어의 의미역배당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다음의 예를 보자.

24 김 동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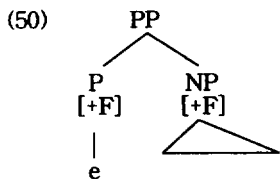
- (48) ㄱ. You must go [NP home].
- ㄴ. John arrived [NP last night].
- ㄷ. He pronounced my name [NP every way imaginable].

(48ㄱ)의 명사구 home은 방향(directive) 역을, (48ㄴ)의 명사구 last night는 시간(temporal) 역을, 그리고 (48ㄷ)의 명사구 every way imaginable은 태도(manner) 역을 담당받는 부착어이다. 그러나 이 부착어들이 단순히 NP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의미역 배당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48)의 각 명사구들은 인접조건(adjacency condition)과 상관 없이 격을 부여받지 못하여 가시성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48)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격-부여와 의미역-배당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49) ㄱ. You must go [PP \emptyset [NP home]].
- ㄴ. John arrived [PP \emptyset [NP last night]].
- ㄷ. He pronounced my name [PP \emptyset [NP every way imaginable]].

(49)의 각 \emptyset 는 핵 P의 관할을 받는 공범주이다. 이것들은 (40)의 공범주-보문자(empty category complementizer)와 마찬가지로 격-부여자로 기능한다.

공범주를 격-부여자로 가정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기존의 가시성조건을 유지하면서 다른 핵어 없는 내심구조를 설명하는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Larson(1985; 1987)의 주장보다 낫다. 부착어로 기능하는 명사구는 격-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약점을 Larson은 추상자질 [+F]를 설정함으로써 극복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부착어로 기능하는 명사구의 격-부여는 다음과 같다.



Larson은 (50)의 NP가 핵 P가 지닌 자질 [+F]를 내포(incorporate)하고 있다고 본다. NP속에 내포된 자질 [+F]는 자신의 NP에게 격을 부여한다. 부착어로 기능하는 명사구가 자신으로부터 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부착어도 격-여과(Case filter)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과 부착어가 통사적

신분에 있어서 전치사구와 다름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Larson의 의미역-배당규칙은 다음과이다.

(51) Assign an adverbial θ -role to α , where α is any phrase.

의미역-배당규칙 (51)은 부착어의 의미역은 통사적 신분에 상관없이 어떤 구-구조에게도 배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51)은 자신의 [+F] 자질에 의하여 재귀적으로(reflexively) 격을 부여받은 부착어에게 적용되어 의미역을 배당한다. Larson의 (50)은 부착어로 기능하는 명사구를 핵어 없는 전치사구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의 분석 (50)은 핵어 전혀 어휘삽입이 되지 않은 채로 비어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Larson의 분석은 인상동사(raising verb)에서 보충어와 달리 부착어는 인상되지 못함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52) \neg . Tomorrow_i appears [t_i to be rainy].

\neg . China_i was tough [PRO to visit t_i that occasion].¹⁶

(53) \neg . *Tomorrow_i appears [that it will rain t_i].

\neg . *That occasion_i was tough [PRO to visit China t_i]

Larson에 의하면 (52)의 인상이 허용되는 반면, (53)의 인상이 불가능한은 격-충돌(Case clash)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비록 (53)의 명사구 tomorrow와 that occasion이 각각 부착어이긴 하지만 자신의 자질 [+F]에 의하여 격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격-충돌(Case-clash)로 인하여 비문법적이다.

우리는 Larson의 추상적 자질 [+F] 대신 공범주 격-부여자 \emptyset 를 설정함으로써 (53)을 격-충돌(Case clash)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53)의 명사구 tomorrow와 that occasion은 공범주 \emptyset 를 핵어로 취하는 전치사구의 보충어이며 \emptyset 가 그들의 격-부여자이다. 따라서 이들 명사구가 인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격-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16. 전통적으로는 이와같이 China가 모문의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변형, 즉 비주어-인상(nonsubject raising)이 허용되었지만, Chomsky(1981) 이후는 이와 같은 변형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은 NP-흔적 조건(NP-t condition)을 위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China가 이중으로 격을 부여받게 되어 격-충돌(Case-clash)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인상의 문제점이 모종의 방법으로 해결되었다고 전제하고 설명의 편의상 이 문장을 예시하는 것이다.

4. 요약과 결론

우리는 공범주가설에 입각해서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생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저부에서 특정 구-구조의 핵이 관할하는 위치에 음성가를 가진 어휘 대신 공범주 \emptyset 가 삽입되면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범주가 삽입되지 않고 공백으로 남아 있는 기능적 핵(functional head)인 C를 가진 모문(matrix clause)은 핵어 없는 내심구조로 보기 어렵다.

핵어 없는 보문자구(headless CP)의 핵어 $[c\emptyset]$ 는 음성가를 가진 보문자 for와 마찬가지로 격-부여자(Case-assigner)로 기능하여 보문(complement clause)의 주어에게 목적격을 부여한다. 이것은 Kayne(1981)의 생각과 일치한다. 공범주 $[c\emptyset]$ 의 설정은 Chomsky(1981)의 S-삭제가설보다 문법적 부담이 적다. 핵어 없는 보문자구의 인정은, 또한, 다른 구-구조에서도 핵어 없는 내심구조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핵어 없는 명사구(headless NP)의 핵어 $[N\emptyset]$ 는 그것의 수식어인 형용사와 더불어 격과 의미역을 부여받는 논항으로서 PRO와 대단히 유사한 공범주이다. 공범주 PRO는, 그러나, 그 통사적 속성때문에 공범주 $[N\emptyset]$ 를 대신하지 못한다. 공범주 $[N\emptyset]$ 는 격-부여를 위하여 지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범주 $[N\emptyset]$ 가 음성을 가진 어휘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은 달리 핵어 없는 명사구가 핵어를 가진 명사구와 달리 항상 통칭적인 독법(generic reading)을 가지기 때문이다.

핵어 없는 전치사구(headless PP)의 핵어 $[p\emptyset]$ 는 $[c\emptyset]$ 와 마찬가지로 격-부여자로 기능하여 그것의 보충어인 NP에게 격을 부여한다. 공범주 $[p\emptyset]$ 의 설정은 가시성조건을 준수하면서 종래 부착어에게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외관상 전치사를 취하고 있지 않는 부착어가 공범주 $[p\emptyset]$ 로부터 격을 받아서 의미역-부여에 가시적(visible)이 되어 시간(temporal), 위치(locative), 방향(directive), 태도(manner)와 같은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범주 $[p\emptyset]$ 의 설정은, 또한, Larson의 추상적 자질 [+F]의 설정을 없애준다. 사실 NP가 지닌 자질 [+F]이 자신의 NP에게 재귀적으로(reflexively) 격을 부여한다는 Larson의 생각은 무리가 있었다. 우리는 격-부여자 $[c\emptyset]$ 를 설정함으로써 Chomsky의 S-삭제를 없앨 수 있듯이, 격-부여자 $[p\emptyset]$ 를 설정함으로써 Larson의 [+F]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핵어 없는 내심구조의 분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예컨대, 핵어 없는 보문자를 취하는 동사는 소위 예외적 격-표시 동사(ECM verb)에 한한다. 핵

어 없는 명사구를 형성하는 형용사는 인간의 속성, 추상성을 나타내는 소수의 형용사에 국한된다. 또한, 전치사를 취하지 않아 핵어 없는 전치사구를 형성하는 명사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핵어 없는 내심구조는 어휘-지배적(*lexically-governed*) 현상으로 보고싶다.

참고문헌

- 김동욱. 1993. "문장주어의 통사적 신분에 관한 연구," *어학교육* 22: 1-32.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 1996. *변형생성문법개관*. 서울: 한신문화사
- Baker, C. L. 1991. "The Syntax of English *Not*: The Limits of Core Grammar," *Linguistic Inquiry* 22: 387-430.
- Bayer, J. 1984. "Towards an Explanation of Certain That-t Phenomena: the COMP-node in Bavarian," in De Geest, W. and Y. Putseys, eds., *Sentential Complementation*. Foris, Dordrecht.
- Borsley, R. D. 1989. "A Note on Ellipsis and Case," *Linguistic Inquiry* 20: 125-130.
- Bresnan, J. and J. Grimshaw. 1978. "The Syntax of Free Relative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9, 331-391.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Jacobs and P.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Mouton, the Hague.
-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_____. 1986a.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ss.
- _____. 1986b.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s, and Use*. Praeger, New York.
- _____.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R. Freiden, ed.,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MIT Press, Cambridge, Mass.
- _____. 1993. "A Minimality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Halle, K. and S. Keyzers,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MIT Press, Cambridge, Mass.
- Clahsen, H. and K.-D. Smolka. 1986. "Psycholinguistic Evidence and the Description of V-Second Phenomena in German," in Haider, H. & Prinzhorn, M. eds., *Verb Second Phenomena in Germanic*

- Languages*. Foris, Dordrecht.
- Emonds, J. 1970. *Root and Structure Preserving Transformations*. MIT Doctoral dissertation.
- _____. 1976. *The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Academic Press, New York.
- Groos, A. and H. van Riemsdijk. 1979. "Matching Effects in Free Relatives: A Parameter of Core Grammar," in A. Belletti, L. Brandi and L. Rizzi, eds., *Theory of Markedness in Generative Grammar*. Scuola Normale Superiore, Pisa.
- Hornstein, N. and D. Lightfoot. 1981. *Explanation in Linguistics*. Longman, London.
- Iatridon, S. 1990. "About Agr(P)," *Linguistic Inquiry* 21, 551-577.
- Jackendoff, R. 1977. *X-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MIT Press, Cambridge, Mass.
- Kayne, R. 1981. "On Certain Differences between French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12, 349-371.
- _____. 1987. "Null Subjects and Clitic Climbing," MIT ms., Cambridge, Mass.
- Koster, J. 1978. "Why Subject Sentences Don't Exist?" in J. Keyser, ed., *Recent Transformational Studies in European Languages*. MIT Press, Cambridge, Mass.
- Larson, R. K. 1985. "Bare-NP Adverbs," *Linguistic Inquiry* 16, 595-622.
- _____. 1987. "'Missing Prepositions' and the Analysis of English Free Relative Clauses," *Linguistic Inquiry* 18, 239-266.
- McClosky, J. 1979. *Transformational Syntax and Model Theoretic Semantics*. Reidel, Dordrecht.
- Napoli, D. J. 1983. "Comparative Ellipsis: a Phrase Structure Analysis," *Linguistic Inquiry* 14, 675-694.
- Piera, C. 1979. "Some Subject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10: 732-735.
- Pollock, J.-Y.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for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London.
-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Rizzi, L. 1989. *Relativized Minimality*(Revised version).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 Rosenbaum, P. 1967.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MIT Press, Cambridge, Mass.
- Rothstein, S. 1983. *The Syntactic Forms of Predication*. MIT Press, Cambridge, Mass.
- Soames. S. and D. Perlmutter. 1979. *Syntactic Argumentation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MIT Doctoral dissertation, Cambridge, Mass.
- Traugott, E. C. 1972. *A History of English Syntax*. Holt, Rinehart, Winston, New York.
- Williams, E. 1983. "Against Small Clause," *Linguistic Inquiry* 14: 287-308.

김 동 욱

503-703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592-1

광주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과